

10월 1주차

주간 매크로 투자회의

다가오는 저점의 시간



주요 시장동향 및 차주 전망

시장동향 (9.30 ~ 10.04)

주식

미중 협상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미국 제조업 및 서비스 PMI 부진 등 대외적 환경의 영향으로 움직임. 미 경제지표 부진으로 하락 마감

금리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및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으로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금리 하락

환율

북한 관련 이슈에도 불구하고 한국 펀더멘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상승

유가

아람코의 산유량 회복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 그러나, 現 유가는 美 드라이빙 시즌 종료 + 美 제조업 지표 부진 등 수요 이슈에 취약. 유가 낙폭 확대

지수밴드 및 향후 전망 (10.07 ~ 10.11)

주식

홍콩 긴장감 재심화, 미중 고위급 협상 불안감 등 시장 불안 요소들 여전. 차주 10~11일 예정된 미중 협상과 곧 시작될 3분기 실적시즌 주목해야 하는 상황

금리

소비자물가지수 하락과 경기 둔화 폭 확대 모두 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판단

환율

펀더멘탈 상으로 적정 환율은 1,180원에서 1,200원 선으로 판단. 디플레 우려 확대 가능. 경기성장에 대한 하락 조정으로 환율 하락은 제한적

유가

美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금주 美中 고위급 무역협상에서의 스몰딜 여부가 수요 문제 해결해줄 수 있을지 주목. 現 상황에서 관망세 유지 필요

구분	등락률(%)		종가(10.04)	차주 지수밴드
	주간(%WoW)	월간(%MoM)		
KOSPI	-1.43	1.62	2,020.69	2,000 ~ 2,110 pt
KOSDAQ	-0.81	-1.19	621.84	600 ~ 645 pt
국채3년	-9.5 (bp)	-2.0 (bp)	1.207	1.1 ~ 1.35 %
원/달러	-0.28	-0.95	1,196.56	1,180 ~ 1,220 원
WTI	-5.54	-6.13	52.81	\$ 49.00 ~ 56.00

주요 경제지표 발표 및 이벤트

Date	국가	지표	예상치	실제치	이전치
09/30	중국	9월 제조업 PMI	49.6	49.8	49.5
		9월 차이신 중국 PMI 제조업	50.2	51.4	50.4
10/01	한국	9월 CPI (YoY)	-0.3%	-0.4%	0.0%
		9월 수출 (YoY)	-9.6%	-11.7%	-13.8%
	미국	9월 ISM 제조업지수	50.0	47.8	49.1
	유럽	9월 마킷 유로존 제조업 PMI (확정치)	45.6	45.7	45.6
10/03	미국	8월 내구재 주문 (확정치)	-/-	0.2%	0.2%
10/04	미국	9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	145k	136k	168k
		9월 실업률	3.7%	3.5%	3.7%
10/08	독일	8월 산업생산 WDA (YoY)	-4.2%	-/-	-4.2%
	미국	9월 PPI 최종수요 (YoY)	1.8%	-/-	1.8%
	중국	9월 차이신 중국 PMI 종합	-/-	-/-	51.6
10/09	중국	9월 통화공급 M2 (전년비)	8.3%	-/-	8.2%
		9월 신규 위안화 대출	1350.0b	-/-	1210.0b
	미국	8월 도매 재고 (MoM)	0.4%	-/-	0.4%
10/10	미국	9월 CPI (YoY)	1.8%	-/-	1.7%
10/11	독일	9월 CPI (확정치, YoY)	1.2%	-/-	1.2%
	미국	10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잠정치)	92.0	-/-	93.2

주요 이벤트

✓ 미국 FOMC 의사록 공개(10/9)

지난 FOMC에서 기준금리는 25bp 인하되었지만, 일부 위원들은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하고 일부는 50bp 인하를 주장했던 만큼 경기 판단과 통화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엇갈린 상황. FOMC 의사록에서는 경기 판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 이와 함께 다음주에 예정된 연준 위원들의 발표 역시 관심 있게 지켜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 긴축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미국-EU 무역 분쟁 가시화

미국은 EU가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WTO에 제소했는데, WTO는 이에 대하여 미국의 손을 들어 줌.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미국은 10월 18일부터 EU산 항공기, 헬기, 치즈, 올리브, 위스키 등 75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 블룸버그는 EU가 WTO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미국에 보복을 준비할 것이라고 보도.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에 미국이 보조금 지급한 점을 EU가 WTO에 제소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판정은 내년에 발표될 예정. 미국과 EU 관계자는 10월 15일에 무역협상을 위해 만날 예정으로 알려 졌으며, EU는 그 이전에 보복관세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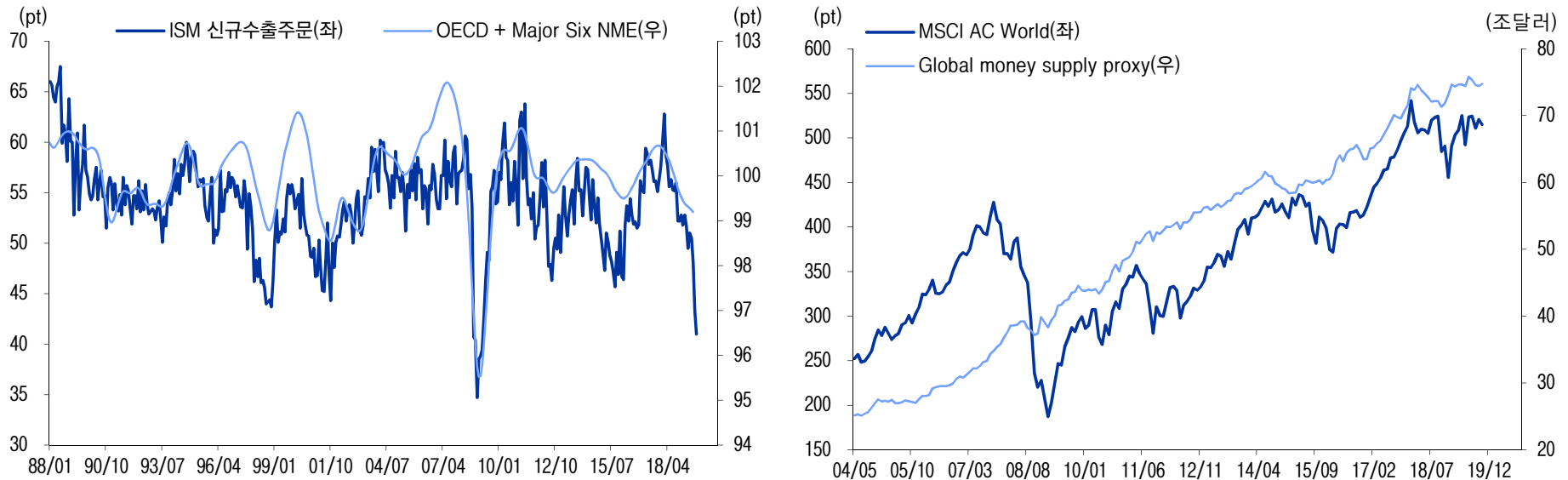


Strategist's Comments

Chief Strategist 신중호

다가오는 저점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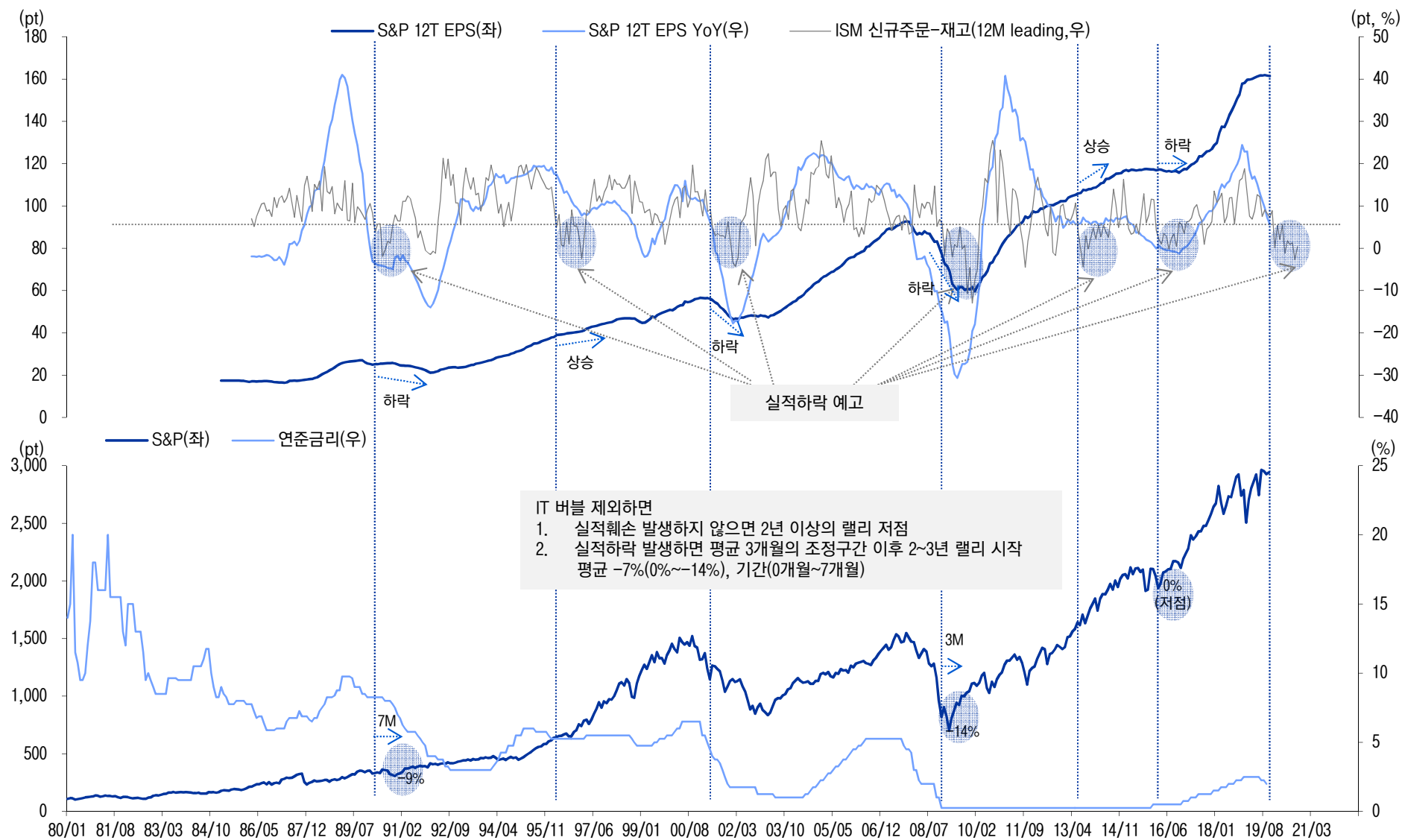
- ✓ 지난주 미국 지표는 충격 그 자체, ISM 제조업의 47.8. 특히, 신규수출주문 지수가 41pt를 기록. 지난 30여 년간 금융위기 다음으로 최악. 긴축정책과 무역갈등의 충격이 고스란히 반영
- ✓ 그러나 시장이 예상보다 버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유동성과 과거의 경험. 실제 9월 미국 고용데이터가 발표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빠르게 안정을 찾음. 실업률은 낮아지고, 시간당 임금은 하락하면서 소위 Sweet spot 데이터(경기침체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금리를 내릴 정도)를 보여줬기 때문
- ✓ 실제 ISM 신규주문-재고 데이터가 가파른 실적하락을 예고한 경우 연준의 적절한 통화정책과 맞물리며 주가지수는 저점 형성. 1990년 이후 현재와 같이 S&P의 실적하락을 예고한 경우는 6번, 그 중 2번은 오히려 실적상승(주가는 통화정책과 실적으로 추세상승). 실적하락이 실제 출현한 4번 중 3번은 조정구간(평균 -7%, 기간 3개월) 거친 이후 랠리 시작



주: Global money supply proxy(M2 for the Eurozone, China, United States, Japan, South Korea, Australia, Canada, Brazil, Switzerland, Mexico, Russia, Taiwan. Figures are in USD)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Strategy —실적하락 예고와 펀더멘탈 그리고 주가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conomist 최광혁

이번 주는 중요한 경제지표의 발표가 거의 없는 상황.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이나 FOMC의사록, 브렉시트 등 이벤트 요소에 더 크게 반응할 것. 한국 경제성장을 전망치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미중 무역분쟁을 제외하더라도 한국 경제의 성장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 장기적 우려 요인

한국 배당수익률은 12M Fwd 기준 2.6%, 12M TR 기준 2.2%를 기록 중. 이는 전 세계 기준으로 볼 때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2년 전까지만 해도 들어왔던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배당수익률'이라는 오명에서는 벗어난 모습을 보임. 한국 기업들은 95% 이상이 12월 결산 법인 이고,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2% 이상의 배당수익률은 주가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Quant 염동찬



Quant 정다운

반등을 이어오던 KOSPI200이 최근 2주간 -3.3% 하락. 연기금 순매수 둔화 & 외국인 순매도 때문 다음주 KOSPI 200은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 ① 글로벌 펀드 플로우가 2주 만에 유입 전환(\$ +3.0억) → 외국인 순매수 전환(또는 순매도 진정)
- ② KOSPI 200의 Stock to Stock Correl 29.0%로, +1표준편차(29.5%)에 근접
- ③ 최근 1개월간 지속 중인 글로벌 저PBR(밸류 매력 ↑) 증시: 한국, 일본, 독일의 주가 강세 흐름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아람코의 산유량 회복은 여전히 의심되는 부분.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現 상황에서 유가는 수요 이슈에 더 민감. 그간 상대적으로 경기가 양호했던 美 제조업 지표의 부진은 수요 부진 우려를 더 가중. 금주 美中 무역협상에서 스몰딜 여부가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관망세 유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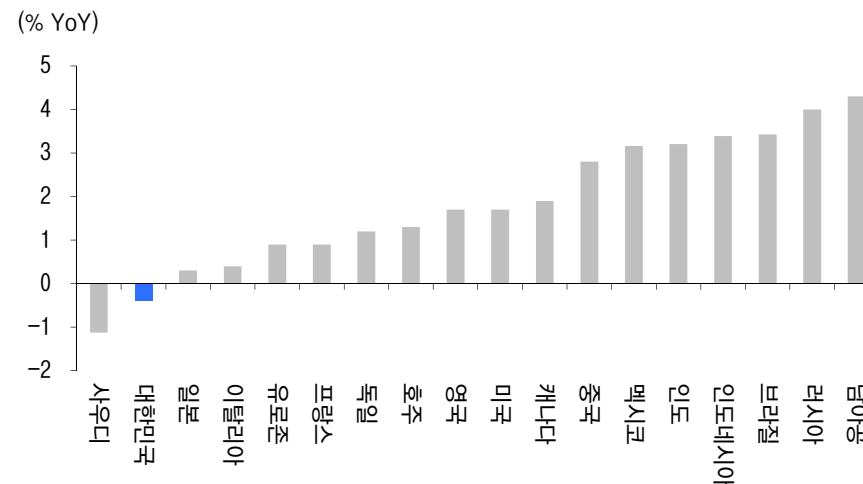
China/Commodity 최진영

Economy – 한국 소비자물가지수 (-)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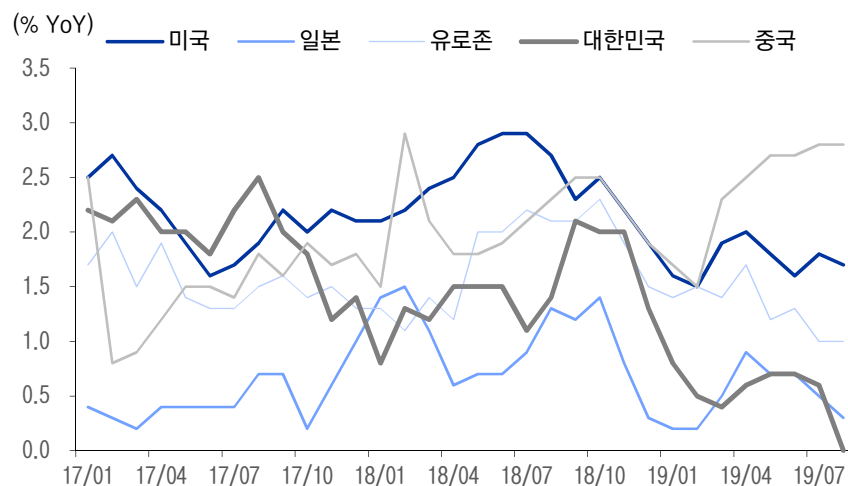
● 디플레 해석이 부분. 하지만 한국이 안 좋은 건 사실

- G20국가 중 소비자물가지수가 (-)를 기록한 국가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한국이 유일
- 사우디가 원유 생산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CPI (-) 진입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상황. 디플레인지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상승시키기 위한 정책 출현이 시급한 상황
- 최근 우려되는 부분은 CPI의 부진도 있지만, PPI가 (-)권으로 수렴하는 현상. 글로벌 디플레 상황의 출현 가능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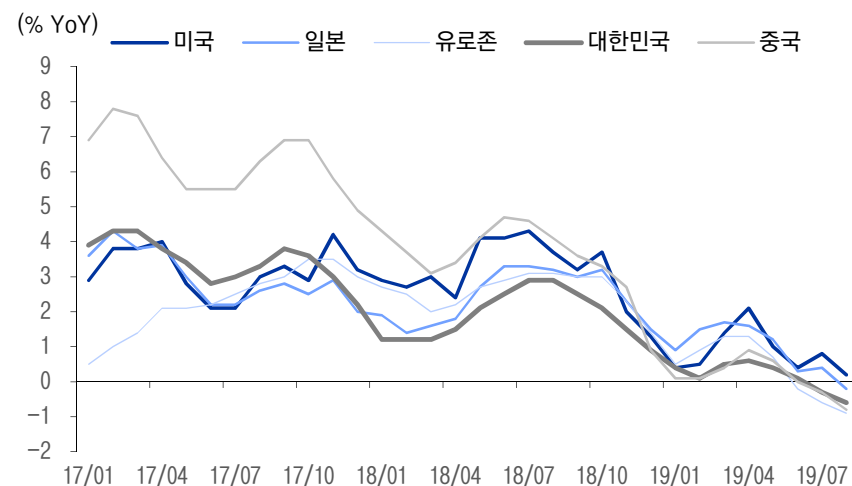
G20국가 CPI 추이



주요국 소비자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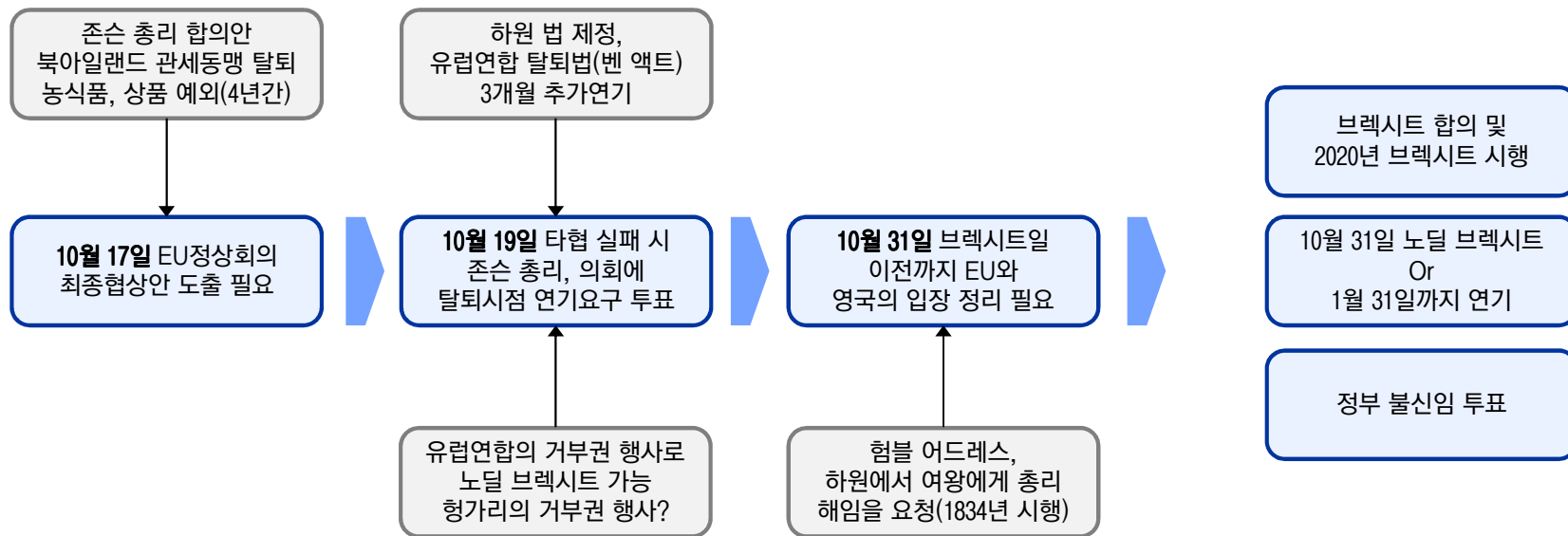
주요국 생산자물가지수



● 10월 17일과 19일 변동성 확대 주의

- 브렉시트 협상 시한이 10월 31일로 이번 달에 존재하고 있어 움직임에 관심이 필요
- 10월 17일 브렉시트 합의안 도출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19일 타협 실패로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 연기안 제출 여부와 방법에 관심
- 브렉시트 합의가 연기된다면, 존슨 총리의 불신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 아직까지 노딜 보다는 브렉시트 취소를 위한 재투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브렉시트 이슈 전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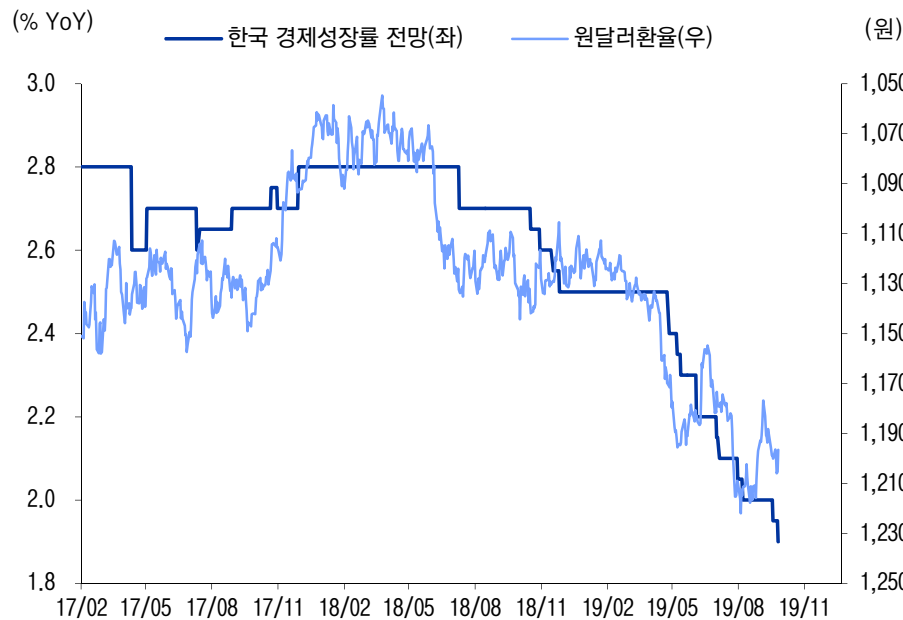


FX –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추가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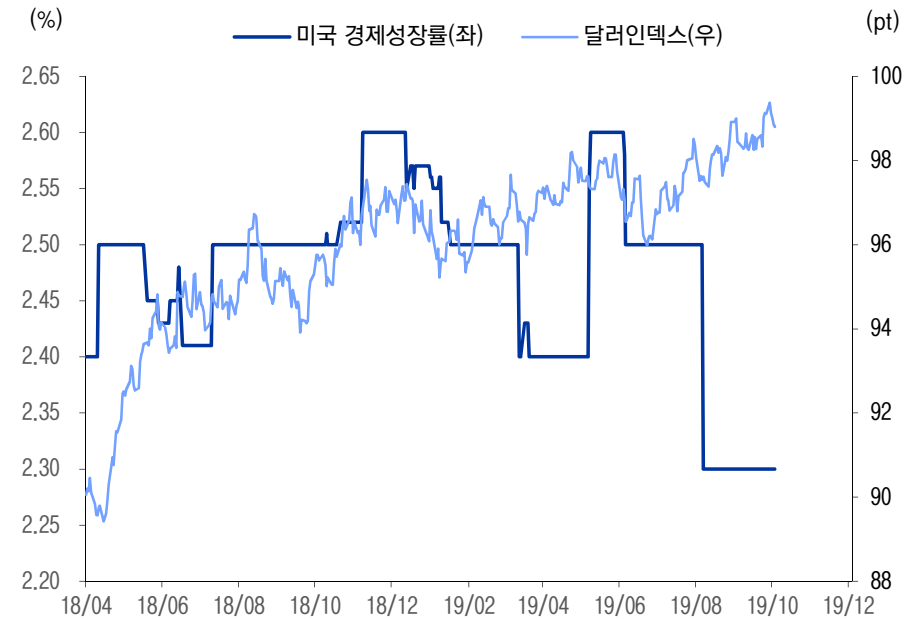
● 환율보다는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에 주목

- 한국 경제성장률 컨센서스가 9월 27일 2%에서 1.95%로 하락한 데 이어, 10월 4일 1.9%로 추가 하락
- 이제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 컨센서스는 2%도 기록하지 못하는 것으로 형성
- 정부의 수출입 증가율과 물가상승률 발표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됐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 여전히 환율의 빠른 하락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과 원달러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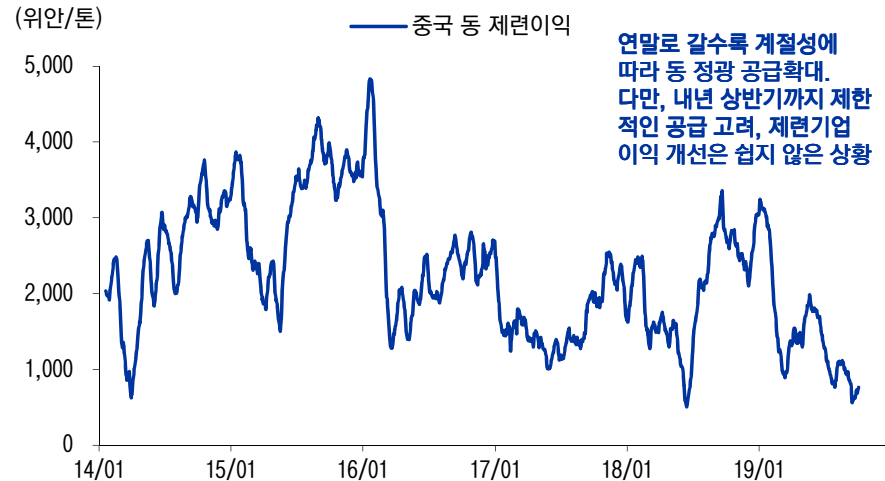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과 달러인덱스



Commodity – 산업금속 수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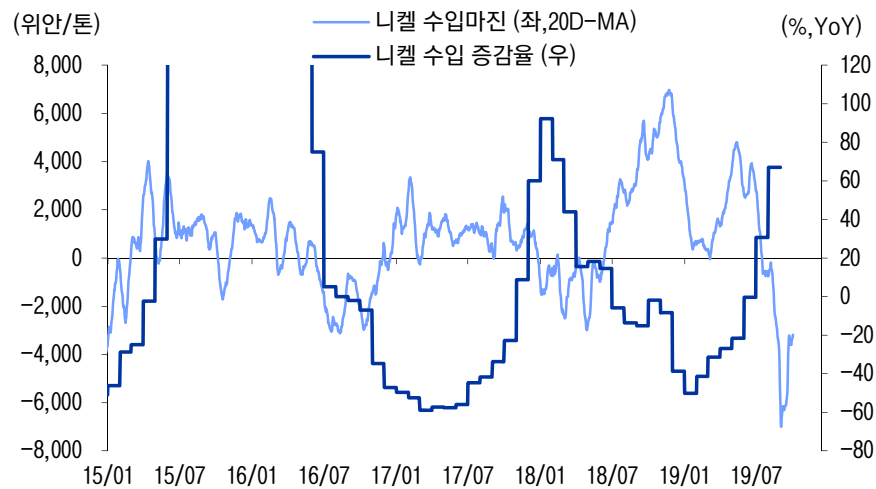
1H20까지 타이트한 공급으로 동 제련기업 이익 개선은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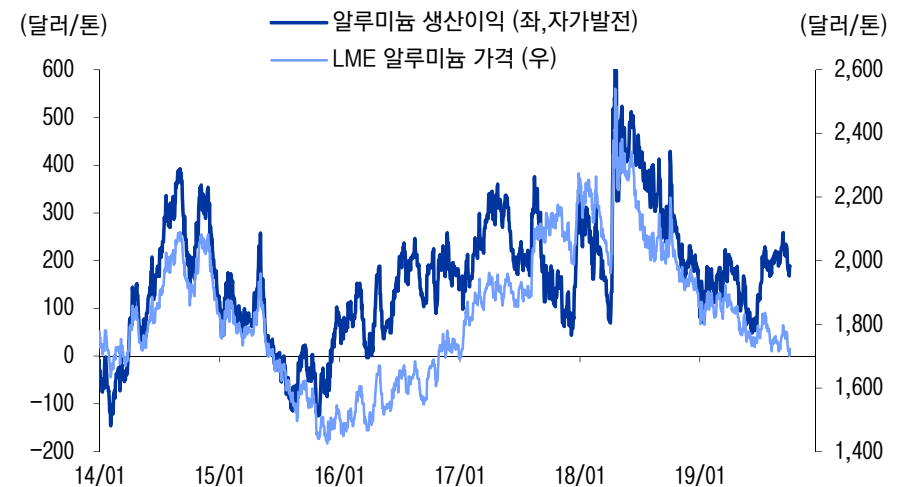
철근 롤-마진 개선, 아연 도금 수요에 나쁘지 않다



인니 원광 공급차질로 중국의 NPI/FeNi 수입 내년까지 확대 예상



중국 자가발전 기업 탓에 알루미늄 공급과잉은 당분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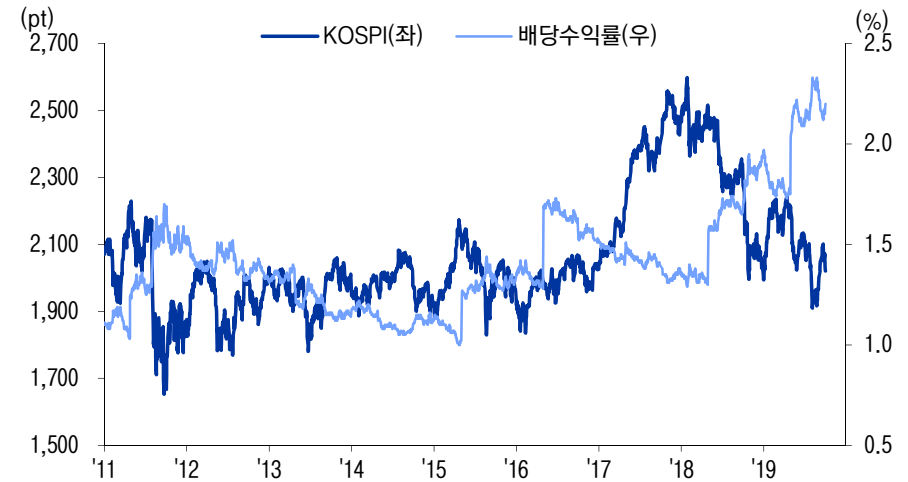


Quant – 한국의 배당수익률은 주가를 지지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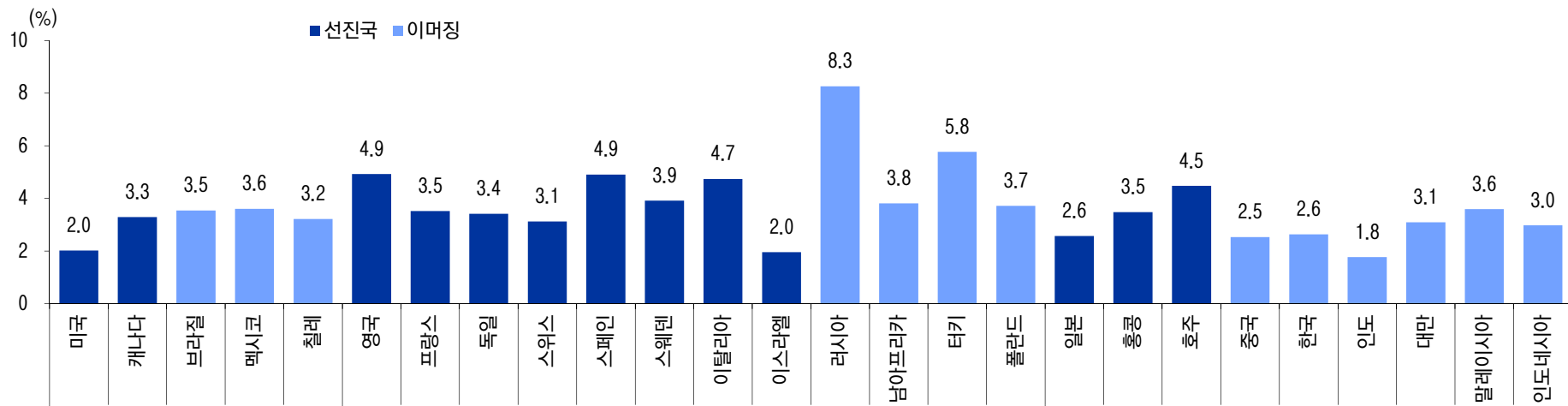
한국 배당수익률, 전 세계 꼴찌 수준 탈출

- ✓ 한국은 1~2년 전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배당수익률을 기록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변화가 발생
- ✓ 이는 2017년~2018년에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는 하락하면서 배당수익률이 증가한 영향
- ✓ 현재 한국의 배당수익률은 2% 이상인데, 이는 여전히 주요국 중에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적어도 꼴찌 수준은 아닌 상황
- ✓ 연말 배당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과 배당수익률이 높다는 점은, 한국의 주가지수 하방을 지지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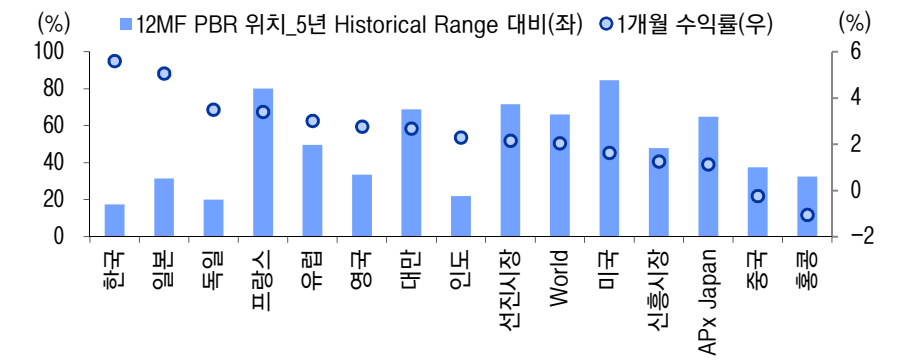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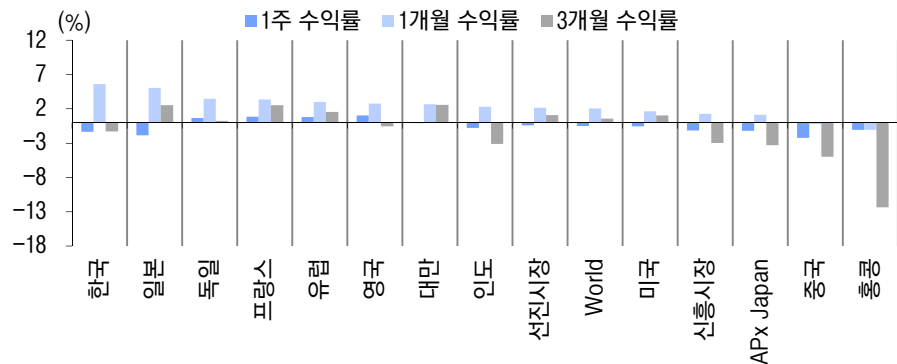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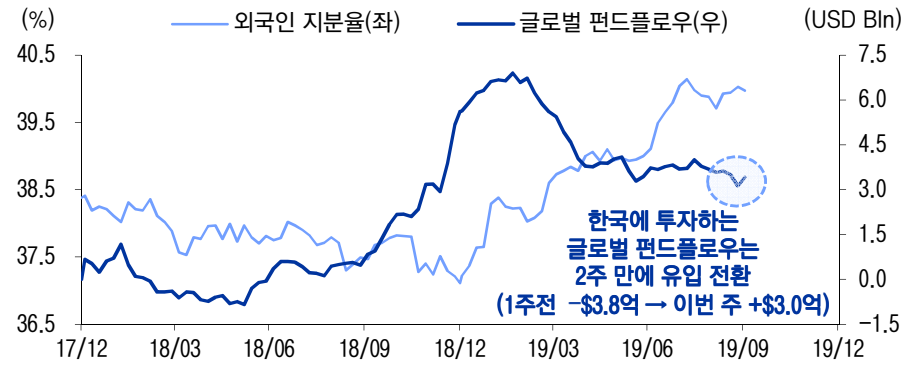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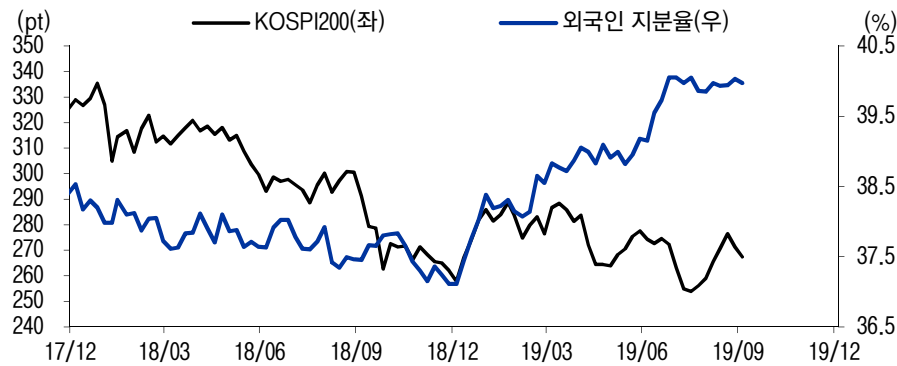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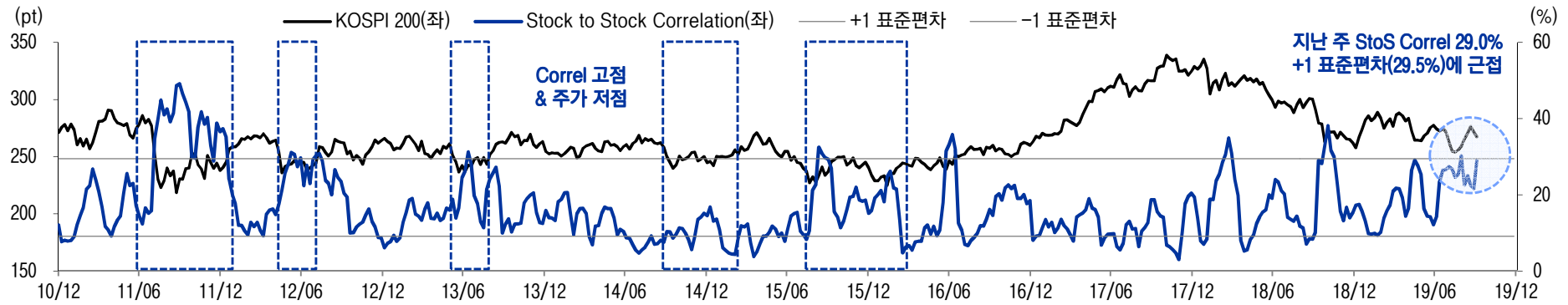
KOSPI와 배당수익률(12M TR 기준)



주요국 배당수익률(MSCI, 12M Fwd DPS 기준)



Quant – KOSPI 200 단기 반등 가능성



Issue – 2019년도 한국 경제성장을 2% 달성이 가능할까?

-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성장을 2.4% 달성 어려울 것이라 발언**

- 7월 초, 정부의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 당시 2019년도 경제성장을 전망치는 2.4%~2.5% 수준
- 그러나 전망 당시보다 미중 무역 갈등은 심화되었고 일본의 對한국 수출 규제가 발생 등 대외 리스크 확대. 기존의 전망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위기라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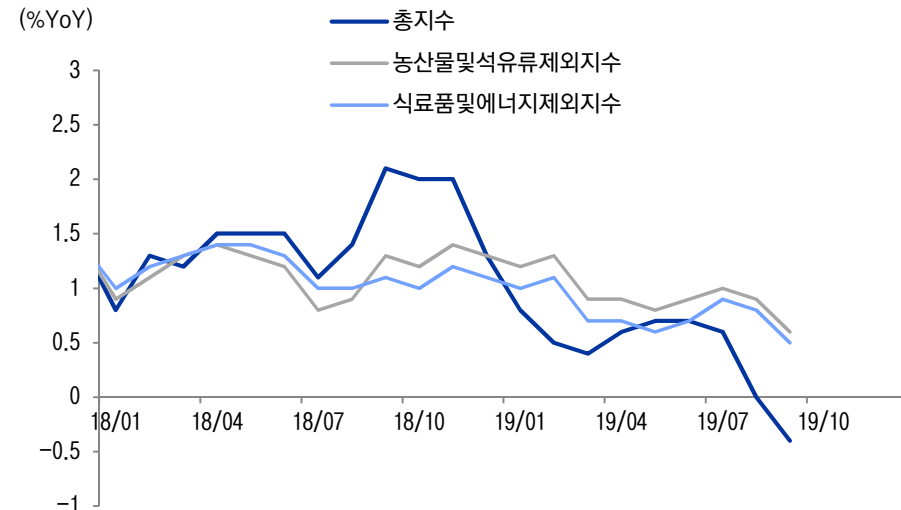
- **이주열 총재도 2.2% 경제성장을 달성 녹록지 않다고 발언**

- 지난 9월 27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하반기 경제 전망 당시 보다 하방 리스크가 더욱 커져 2019년도 한국 경제성장이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 있다고 발언
- 미중 무역 분쟁,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지 않아 연내 글로벌 경기 반등 모멘텀은 크지 않을 것. 아울러 한국 경제도 성장세도 약해진 상황

한국 GDP 성장률



한국 물가상승률



Issue – 미국의 對 EU 관세 부과

- **지난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유럽산 제품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관세 부과 발표**
 - WTO가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보복조치. 연간 75억 달러 규모 관세 부과 가능
 - 미국이 승소함에 따라 18일부터 EU산 농산물(치즈, 올리브오일 등)과 일부 공산품에 대해서 25%, 항공기(부품 제외)에 대해서 10%의 관세 부과
 - 항공기의 경우 부품에는 적용되지 않아 미국 앨라배마에서의 에어버스 생산 비용이 상승하지 않을 것. 또한 보잉이 사용하는 유럽산 부품 가격도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발효 시점 기준으로 운송 중인 상품에 대해 유예기간 부여하지 않을 것
- **EU도 보잉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WTO에 제소한 상황. 최종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나 나올 예정**
 - 내년에 WTO로부터 보복 관세 승인을 받게 되면 EU도 미국 제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 부과 가능. 미중 무역분쟁 이외에 또 다른 무역전쟁 전선 형성될 가능성

미국의 對 EU 교역(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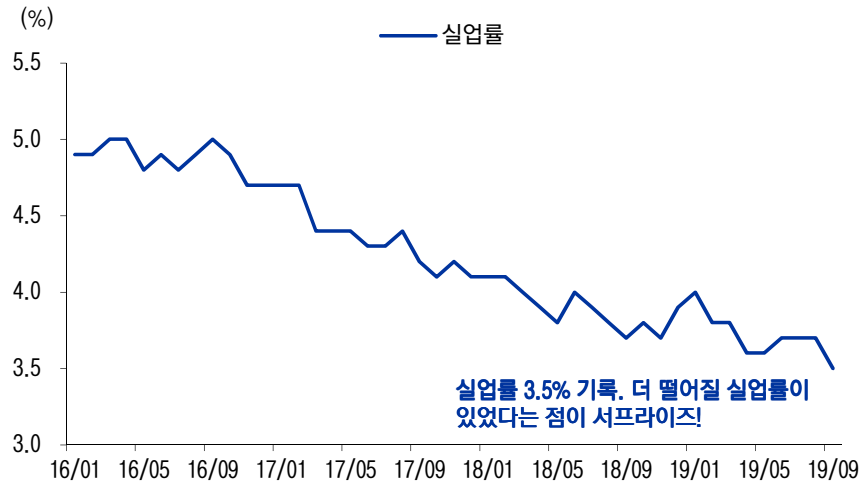
	2017년		2018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상품	283.2	434.6	318.6	487.9
서비스	243.4	192	255.9	196
합계	526.6	626.6	574.5	683.9

오는 18일부터 부과되는 관세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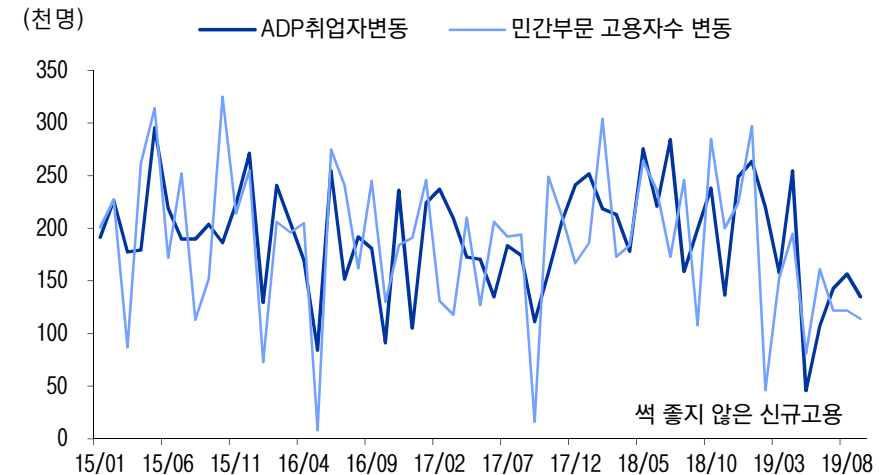
10% 부과	25% 부과
비행기 및 헬기 등 (부품 제외)	스카치 위스키, 의류, 커피, 치즈, 올리브 오일, 냉동 고기, 돼지고기 제품, 버터, 요구르트, 기계류 등

주요 경제지표 해석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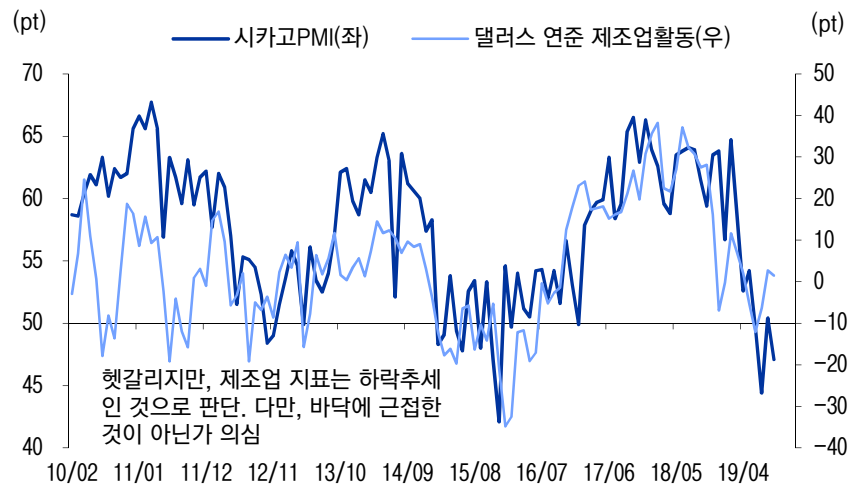
미국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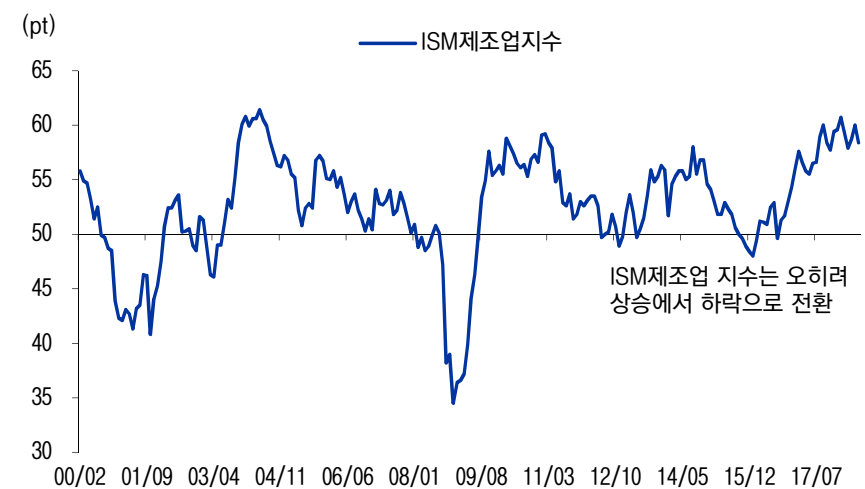
미국 취업자수 변동



미국 연방정부 제조업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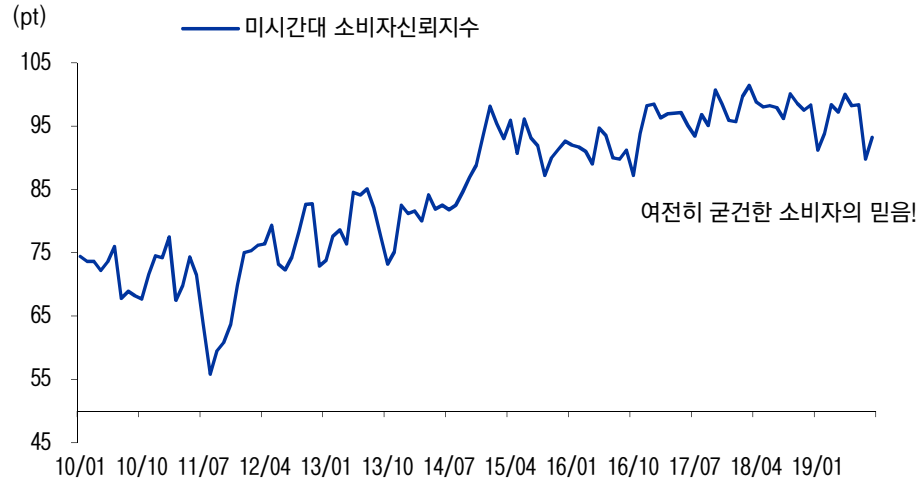


미국 ISM제조업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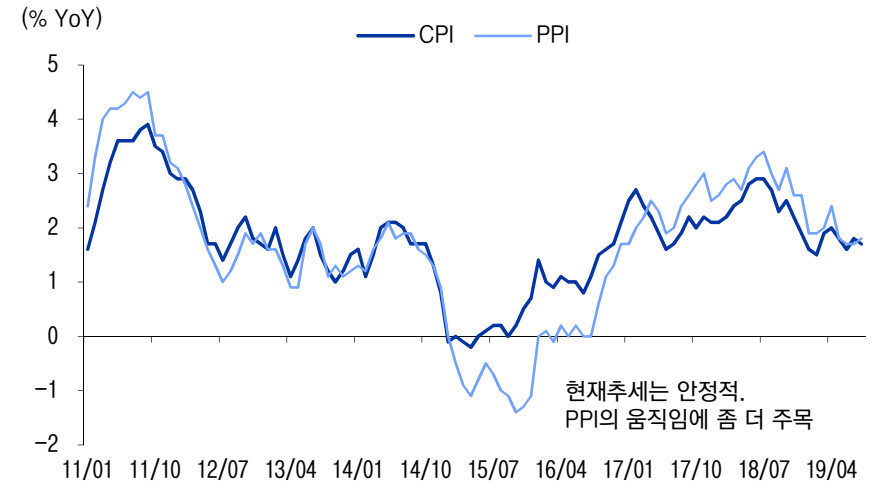


주요 경제지표 해석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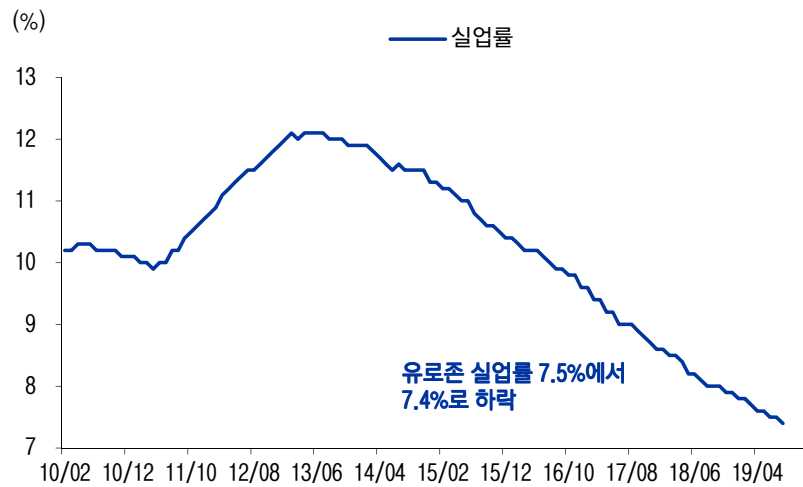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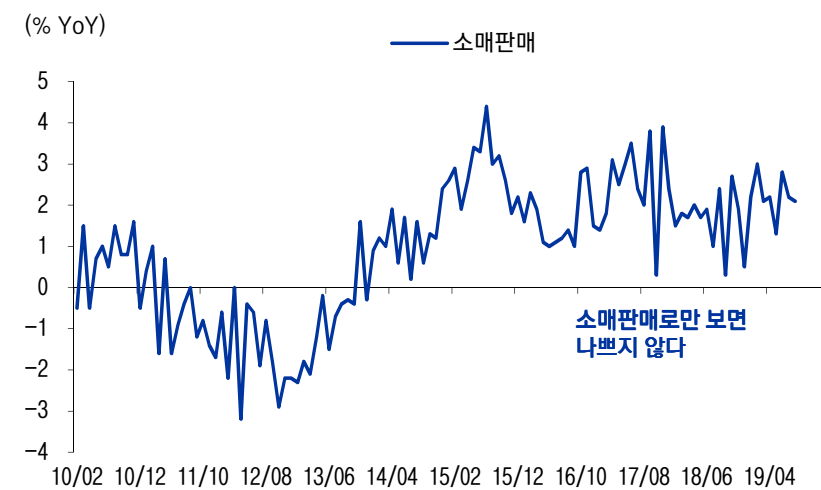
미국 물가지수



유로존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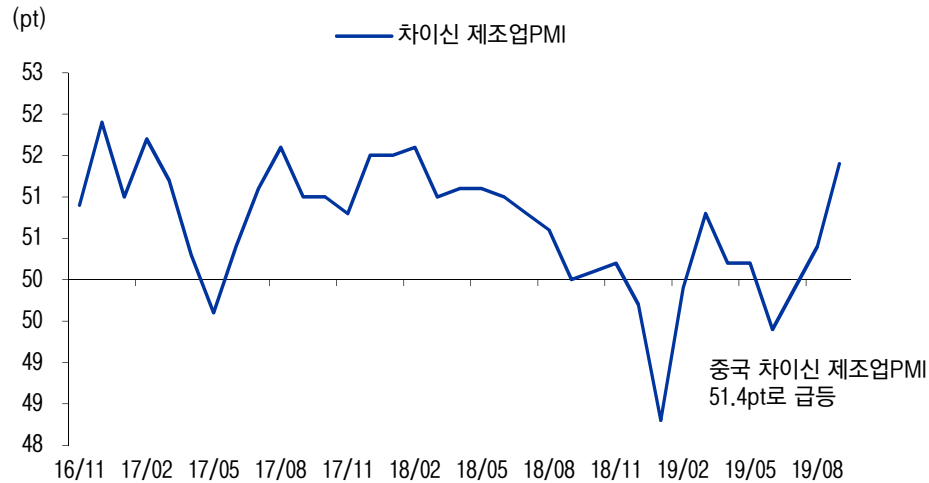


유로존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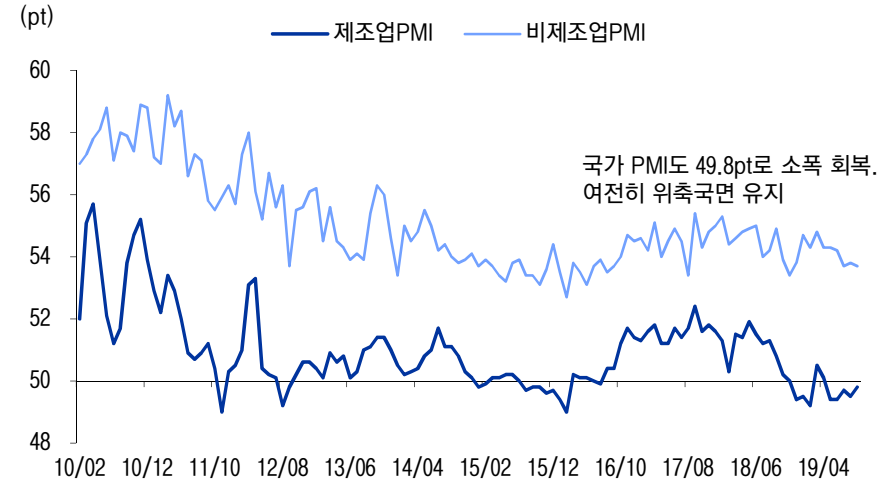


주요 경제지표 해석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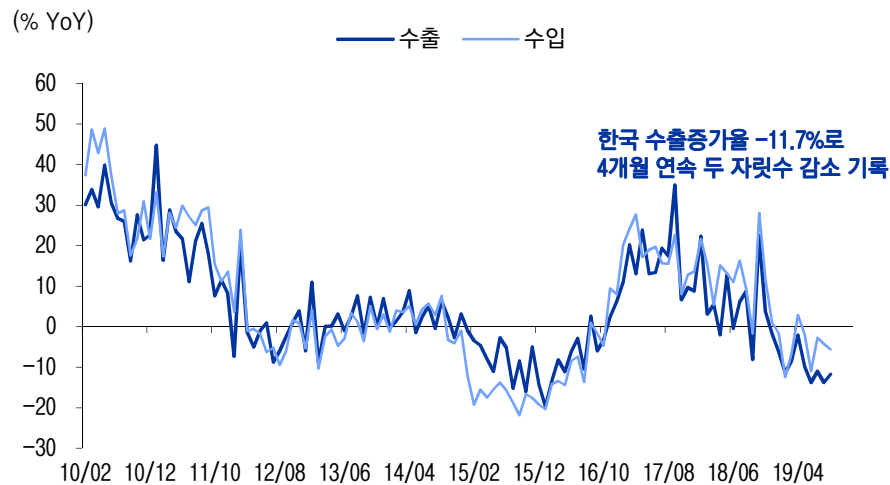
중국 차이신 제조업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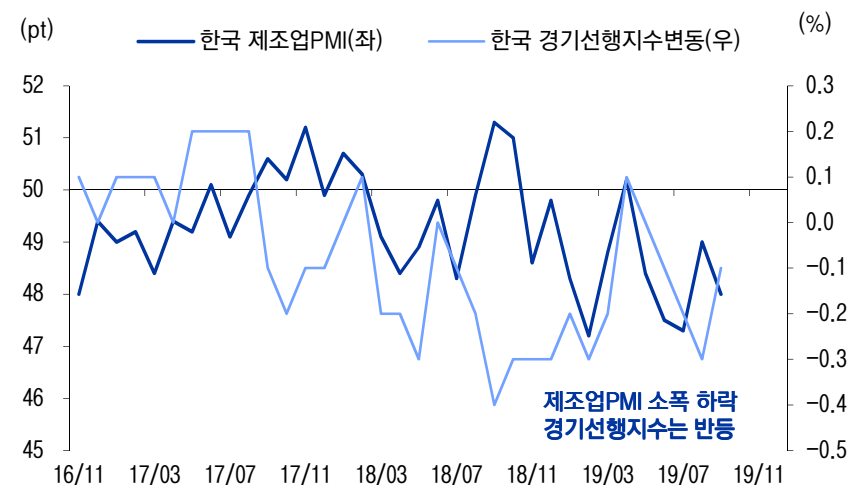
중국 국가PMI



한국 수출입증가율



한국 제조업지수와 경기선행지수



Speeches and Statement Schedule

Date	국가	발표자	성향 (9월 FOMC 기준)	내용
2019.10.06	미국	에스더 조지 캔자스 연은 총재	Centrist	- 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 연례 회의 참석
2019.10.07	미국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Dovish	- Native American reservations의 연준 입장에 대한 토의 참석
2019.10.08	미국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Centrist	- Chicago Rotary Club 만찬에서 연설
2019.10.08	미국	제롬 파월 연준의장	Centrist	- 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 연례 회의 참석
2019.10.08	미국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Dovish	- St. Cloud State University 시청 행사 참석
2019.10.09	미국	제롬 파월 연준의장/ 에스더 조지 캔자스 연은 총재	Centrist/ Centrist	- 캔자스 연에서 Fed Listens 행사 참석
2019.10.10	일본	아마미야 마사요시 BOJ 부총재	-	- 도쿄 ASISFMA 컨퍼런스에서 연설
2019.10.10	미국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Hawkish	- John Carroll University에서 연설
2019.10.11	미국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Centrist	- Creating Opportunity 컨퍼런스에서 연설
2019.10.11	미국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	Centrist	- University of Wisconsin에서 연설

주요 인물의 한 마디: About US

“아주 곧 (증언하길) 기대한다”

“이미 우리가 본 것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유죄를 강력히 시사하는 것”

(2019.09.29)



애덤 시프
민주당 소속
하원 정보위원장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전념과 협정 갱신을
권장한다”

“미국 역할은 우방과 동맹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하는 것”

(2019.09.30)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심각한 범법 증거들이 있다.
대통령은 우리의 국가안보와 미국 선거의
온전함을 약화시키려 한 것”

(2019.09.29)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총회 의장

“조미(북-미) 협상이 기획의 창으로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는 미국이 결정하게 될 것”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고 발전을 이룩하는 관건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역사적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합의 채택된
조미공동성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

주요 인물의 한 마디: About US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에는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해제가 모두 포함돼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미 군사연습 조정이나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할 수 있다며 군사·외교 부문에서는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으나, 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완화·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2019.09.30)

“현대, 기아와 애플티브(APTIV)가 미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40억 달러의 합작법인(JV)에 나선다는 빅뉴스”

“그것은 많은 달러(\$\$)와 일자리”

“엄청난 일자리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중 수교 70주년(10월6일)과 북한노동당 창건일(10월10일) 등을 고려하면 10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트럼프 탄핵 정국’이라는 변수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위축될 가능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 성과가 더 절실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협상을 타결 지으려 할 가능성도 고려할 것”

(2019.09.30)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조미(북미) 쌍방은 오는 10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측 대표들은 조미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조미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

(2019.10.01)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주요 인물의 한 마디: About US

“(홍콩 사태가) 우리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중국 쪽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일은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자국에 대한 불만표시”

“홍콩은 중국의 국제무역 활동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



(2019.10.01)

월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거기(대화)엔 트럼프 대통령을 비방할 어떤 거리도 없다”

“공개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나의 이전 삶은(정보기관 근무 경력은) 내게 모든 내 대화가 공개될 수 있음을 가르쳤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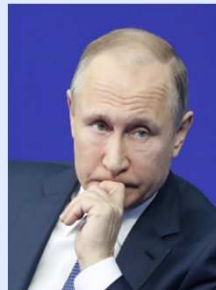


(2019.10.02)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는 (미-우크라 정상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방할 아무 것도 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이전 행정부 직원들의 가능한 부정 거래를 조사해 달라고 동료(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요청했을 뿐이다. 모든 국가 정상이라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행동해야만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완전히 부패했다”

“솔직히 말해 그를 반역 혐의로 조사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 찾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첩자입니다”

“사기” “미국인에 대한 사기 범죄”

“제가 매우 안정적인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2019.10.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요 인물의 한 마디: About US

“예상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이
달러화 강세를 허용했다”

“특히 다른 모든 통화들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강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2019.10.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가 보호주의를 위해 이것(화웨이 제품
사용거부 요구)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팩트에 대해 모르는 것”

“우리의 지정학적 파트너인 인도가 안보
위협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9.10.03)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북한과 대화할 것”

“그들(북한)은 대화하길 원한다. 우리도
그들과 대화할 것”

“지켜보자”

(2019.10.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은 바이든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것만큼 나쁜 일”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

(2019.10.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요 인물의 한 마디: About US 연은 총재

“미국 경제 전망은 상당히 밝으며 여전히 강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

“세계 경제 또는 미국 경제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소폭의 통화정책 조정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적절한 금리 수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소통 방식이 과거 정부와는 상이하나 연준은 경제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할 것”

(2019.10.03)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물가 상승률이 현재 목표치 아래에 있지만 향후 18개월에서 2년 이내 2%에 도달할 것이다”

“건고한 노동 시장과 강한 소비 지출은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것”

“노동 시장은 지속적으로 놀라울 정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 이상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

(2019.09.27)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해외 성장세와 제조업과 기업투자의 약화가 우리 경제 다른 부문으로 스며드는 것을 우리가 만일 기다리고만 있다면 경제의 약세가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내도록 관망만 한다면, 내 생각에 그건 너무 오래 기다린 것이라 본다”

“따라서 차라리 나는 중요한 때 필요하다면, 나중에 보다는 조기에 금리 조정을 선택할 것이다”

(2019.10.03)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시스템 내 지급준비금이 원활히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좁은 범위에서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지급준비금이 필요하다”

(2019.10.01)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주요 인물의 한 마디: About US-EU 무역분쟁

“유럽은 막대한 보조금으로 미국
항공산업과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

“15년간의 소송 끝에 WTO가 승인한 관세를
오는 18일부터 적용할 것”

“WTO 결정은 최고 100% 관세율 부과를
허용하고 있지만, EU와 2004년부터 시작된
이 논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세율을 적정선에서 결정했다”



로버트 라이트 하이지
미국 USTR 대표

(2019.10.02)

“모든 나라가 오랫동안 미국을 뜯어먹고
있었다”

“EU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는 아주
오랫동안 연간 1600억 달러 수준으로
계속돼 왔다. 보다 균형 잡히고 건실한
무역 흐름은 핀란드와 미국 양국에
유익할 것”

“미국은 정말로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

“언론이 정직한 보도를 한다면 미국은
훨씬 더 나은 국가가 될 수 있을 것”

(2019.10.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약 미국이 WTO가 승인한 대응 조치를
이행하기로 결정한다면 EU도 똑같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2019.10.02)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

“이곳(미국)에는 매우 위대한 민주주의가
있다. 그것(민주주의)이 계속 지속하도록
하라”

“우리는 모두 유럽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역시 유럽을 필요로 한다”

(2019.10.02)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

주요 인물의 한 마디: About China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중국 기업들의
뉴욕증시 상장을 금지하는 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연기금의 중국기업 투자제한이나
주가지수 내 중국기업의 상한을 두는
방법 등이 검토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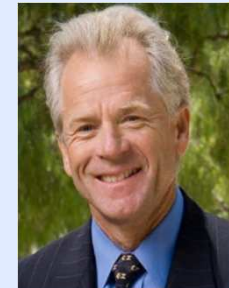
(2019.09.28)



모니카 크롤리
미국 재무부 대변인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그레이트딜(great
deal)'이거나 '노딜(no deal)' 둘 중
하나입니다. '스몰딜(small deal)'은 없을
것입니다”

(2019.10.03)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블룸버그 통신에 등장한 이야기를 매우
주의 깊게 읽었다”

“그 중 절반 이상은 매우 부정확하거나
거짓”

“정말 무책임한 저널리즘”

“블룸버그의 기사가 나가자마자 다른
언론사들도 앞다퉈 보도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미·중 경제무역과 금융협력의 본질은
상호이익”

“양국의 디커플링을 강제하는 미국의
시도는 모두에게 해가 되고, 국제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것”

(2019.09.30)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

주요 인물의 한 마디: About EU

“유로존이 전 세계 강대국(other global powers)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재정 통합에 대한 장기적 협의가 필수적”

“개별 국가 간 고유한 약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통합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

“공통의 유로존 예산이 필요하다”



마리오 درا기
ECB 총재

“미 행정부가 프랑스와 EU가 내미는 손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제재에 대한 대응조치를 준비할 것”

(2019.10.02)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중앙은행 부담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 지원이 없다면 비정상적인(extraordinary) 통화정책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유로존 재정 통합에 대한 정치적 논쟁은 아직 갈 길이 멀다”

(2019.09.30)



마리오 درا기
ECB 총재

“우리는 '탄소 국경세' 문제에 매우 신속하게 대응해 시행되도록 할 것”

(2019.10.03)



파울로 젠틸로니
EU 경제담당 집행위원 지명자

주요 인물의 한 마디: About Brexit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해치고 있다”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할 수도 있다”

(2019.09.27)



마이클 샌더스
BOE 위원

“'항복법안'을 지칭하기 위해 '항복' 이란 단어를 쓴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모두가 침착해질 필요가 있다”

“(자신도 이에 포함되는지를 묻자) 나는 언제나 '자제의 본보기'(model of restraint)였다”

“주 4일 근무는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타격이 될 것”

(2019.09.29)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모든 것이 완전히 적절했다. 런던 시장으로서 한 모든 일이 자랑스럽다”

“언론 담당이나 이런 일을 펄트리는데 집중하기보다는 경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

“국민은 이 나라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완수해야 한다. 나는 이를 해낼 것”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영국의 제안에는 일부 긍정적인 진전이 있으나 아직 일부 문제 요소들이 있다”

(2019.10.02)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주요 인물의 한 마디: About Brexit

“무슨 일이 있어도 10월 말 브렉시트를
실시하겠다”

“오늘 우린 양측(영국과 EU)에 타협을
제시하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브뤼셀에 상정할 것”

“어떤 경우에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관 확인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겠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2019.10.02)

“나는 우리가 이달 중순까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영국이 연기를 요청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를 검토할 것이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주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다”



리오 바라드커
아일랜드 총리

(2019.10.04)

“우리는 여전히 확신 못 하지만,
(협상은) 열려있다”

“아일랜드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2019.10.03)

“글로벌 경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여건이 더 나빠지기 전에 각국이 성장을
촉진하는 공공투자나 구조적 개혁을
단행해야만 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 총재는 햇빛이
날 때가 지붕을 고칠 시기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구름이 끼고, 때때로 비가 내리는
상황에 취임했다. 더는 지붕 고치는 일을
미룰 수 없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신임 총재

(2019.10.04)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신중호, 최광혁, 염동찬, 정다운, 최진영, 우혜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